

임장 영상 찍는데 깜짝 등장한 박동원 "메이플자이 산다"

등록 2025.12.05 00:00:00



[뉴시스] 프로야구 LG트윈스 포수 박동원(35) 선수. (사진='만리장성규' 유튜브 채널 캡처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김건민 인턴 기자 = 프로야구 LG트윈스 포수 박동원(35) 선수가 서초구 잠원동의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.

3일 유튜브 채널 '만리장성규'에는 '아내 몰래 집 사러 간 유부남들'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

영상에서 방송인 장성규(42)는 전민기,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과 함께 서초구 잠원동 '메이플자이' 임장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. 이 아파트는 올해 6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, 장성규는 "말로만 듣던 메이플자이"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.

김 소장은 "임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역이다. 또 초등학교, 중학교와 가까운 게 좋고 편의시설도 중요하다"며 "메이플자이는 근처에 차병원도 있고, 신세계백화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"고 설명했다.

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해 "2024년 1월에 일반 분양을 했다. 일반적인 25평(전용 면적 84㎡) 아파트 분양가가 17억4000만원이었다.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저렴했는데, 지금 2년 정도 지나지 않았다. 전용 면적 84㎡ 기준으로는 50억~60억 정도 한다"고 말했다. 장성규는 "50평에 지금 호가가 75억"이라며 놀랐다.

특히 커뮤니티 시설로 이동하던 중 박동원 선수와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. 장성규는 박동원에게 "여기 사시는 거냐"고 묻자, 박동원은 "네"라고 답했다. 이에 장성규는 "축하드린다"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

메이플자이는 총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, 신반포8·9·10·11·17차, 녹원한신, 베니하우스 등 신반포4지구를 통합 재건축한 아파트다. 캐나다 앨버타주 로키산맥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조경을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.

실제로 메이플자이는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'IFLA APR(아시아-태평양 지역) LA 어워드 2025'에서 주거와 문화·도시경관 2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조경 경쟁력을 입증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